

3월 18일(월) / 삼상 12-15장

▶**내용요약:**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사사 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울의 몰락이 너무나 빨리 왔다. 그는 길갈에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번제를 드리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리더로서의 결격 사유이다.

▶**질문:**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생각하기:** 혜성같이 등장해서 왕위에 올랐던 사울은 초기 큰 공을 세웠으나 금방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나,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리더는 결국 무너진다.

3월 21일(목) / 삼상 24-27장

▶**내용요약:**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나 십 광야에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과 그를 향한 충성을 알면서도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다윗은 생명과 안전을 위해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의 땅으로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된다.

▶**질문:** 어리석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의 아내로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말라는 지혜로운 조언을 한 여인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다. 그가 일상에서 양을 치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길 힘을 길렀듯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생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고충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있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3월 24일(주일) / 삼하 4-6장

▶**내용요약:** 이스보셋 수하에 있던 군 지휘관 두 사람, 레갑과 바아나는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갔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행위를 꾸짖고 그 두 사람을 즉결처형하였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묻었다.

▶**생각하기:** 다윗이 기름부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이 기름부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 왔다.

3월 19일(화) / 삼상 16-19장

▶**내용요약:**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을 감동시켰다. 반면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 삼상 17장에서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온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 그것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였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

▶**질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람들은 전쟁 승리를 축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이라고 노래하였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생각하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돌보면서 그 양들을 위협하던 곰, 사자와 대적하여 싸운 바가 있다. 일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치기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힘을 길렀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용사로 준비되었던 것이다.

3월 22일(금) / 삼상 28-31장

▶**내용요약:**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대를 이스라엘 전투에 참전시키려 하였다. 하지만 아기스 왕의 장군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다윗은 동족 살상의 참담한 일에서 피할 수 있었다. 다윗이 참전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과 다윗 부대원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간 것을 알게 되었다. 부대원들이 낙담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으나 그 큰 곤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아말렉 족속을 찾아가서 무찔렀다.

▶**질문:** 사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무당을 찾아가 어떤 영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영은 누구의 영이였는가?

▶**생각하기:**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무당을 찾아가다. 사울은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다. 다윗에게 일찍 왕위를 이양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다윗은 전투를 앞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블레셋과 전투하여 승리하였다.

▶**질문:** 하나님이 레를 운반하던 수레를 끌고가던 소들이 뛰어서 레가 떨어지려고 레에 손을 대었다가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하나님의 레에 손을 대었던 옷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자 그 레를 다윗은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3월 20일(수) / 삼상 20-23장

▶**내용요약:**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쫓겨 다니는 처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그날에도 요나단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요청하였다.

▶**생각하기:** 다윗이 곳곳으로 피하여 다니는 동안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반면 사울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울은 늑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심지어 그 땅 주민과 가족들까지 칼로 쳐서 죽였다.

▶**질문:** 삼상 23장을 보면 그 당시 그일라 주민들을 괴롭히던 족속들은 무슨 족속이였는가?

▶**생각하기:**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잡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이성을 잃은 리더에 의해서 다윗을 쫓느라 국력이 낭비되고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 와중에 다음 리더가 준비되고 있었다.

3월 23일(토) / 삼하 1-3장

▶**내용요약:** 다윗에게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사울과 여호와의 백성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금식하였다. 그리고 조가를 불러서 그 슬픔을 표현하였다.

▶**생각하기:**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하나님이 사울 집안의 권력을 빼앗아 다윗에게 줄 것을 알고 다윗을 찾아가 그가 유다와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질문:**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자는 누구인가?

▶**생각하기:**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는 조가를 불러서 그 슬픔을 표현하였다. 그 애도의 노래는 용사로서의 사울과 요나단을 그리고 있으며,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우정을 노래하였다. 다윗은 개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았다.

▶**생각하기:** 이후 오벧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레를 사람들이 메고 다윗 성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레는 수레에 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고 가야 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레가 다윗 성으로 가는 동안 다윗은 춤을 추며 즐거워하였다. 그의 춤과 즐거움은 부족한 사람들 들어 쓰셔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